

## 20세기 스웨덴 현대 가구디자인의 특성

- 스웨덴의 대표적인 8인 가구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

### Characteristic of Swedish Modern Furniture Design in the 20th Century

- In Reference to Works by 8 Prominent Furniture Designers in Sweden -

Author 최정신 Choi, Jung-Shin / 정희원,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교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haracteristic of Swedish modern furniture design through design works made by 8 prominent Swedish furniture designers during the 20th century. The study was complet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searching for web-sites of Swedish distinguished furniture companies. 8 furniture designers, eg. Erik Gunnar Asprund, Carl Malmsten, Josef Frank, John Kandell, Mats Theselius, Bruno Mathsson, Åke Axelsson and Yngve Extröm were selec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wedish modern furniture desig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y pursuit simple and functional design beyond time. 2) they pursuit functionalism modified with Swedish traditional craftsmanship. 3) natural wood is considered as the most beloved material for the furniture together with other natural materials such as hemp, leather and cane. 5) easy maintenance and durability of the furniture are considered as important factors to make it last long. 6) ecological concept is fulfilled to meet environmental legislation.

Keywords 스웨덴, 현대가구, 디자인, 장인정신, 스웨디쉬 모던  
Sweden, Modern Furniture, Design, Craftsmanship, Swedish Moder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로 구성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지구의 북쪽에 위치하여 역사나 환경, 기후, 문화 등의 동질성을 갖고 그들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나라들이다. 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유사성으로 인해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결속력을 보이는데 그들의 디자인 역시 동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국가들은 현대 디자인의 세계화 경향을 맞이하기 이전에는 유럽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문화의 전파가 늦었고 척박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배경이 오히려 스칸디나비아의 독특한 민속예술을 발달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처음 발생하여 유럽의 각국으로 퍼져갈 당시에도 스칸디나비아는 지리상으로 격리되어 그 영향이 늦게 파급될 수밖에 없었으나, 스웨덴은 그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20세기 근대 디자인 운동과 양식을 토착화 시키고 이를 자국만의 독특한 조형양식으로 발전시켜온 나라로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스웨덴 근·현대 디자인은 “스웨디쉬 그레이스(Swedish Grace)”, “스웨디쉬 모던(Swedish Modern)” 등의 용어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합리적인 구조와 인간적인 감성을 모두 포함하는 우수한 디자인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모더니즘, 기능주의의 현대적 이상과 공예의 전통기술이 결합된 결과로, 특히 가구디자인에 있어서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가구의 다양한 기능과 양식의 실험을 통하여 목재가 지니는 실용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훌륭한 디자인 사례들을 도출하였다<sup>3)</sup>.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스칸디나비아 가구에 대한 연구로는 덴마크, 핀란드와 스웨덴의 현대가구

1) 최정신, 덴마크 민속 수납가구의 디자인과 장식-채색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7권, 1998, pp.157-165.  
2) Paulsson, Jan, Art, Architecture and Design(Notes on the Nature and Contents of Nordic Models during the 20th Century), 스칸디나비아연구 제6호, 2005, pp.229-256.

3) 홍민정·최정신, 스웨덴 근·현대 가구디자인의 특성과 브루노 마손의 작품세계, 한국가구학회지 20권 5호, 2009, pp.517-532.

와 디자인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나 그 주제는 주로 핀란드의 알바 알토(Alva Aalto), 덴마크의 아르네 야콥슨(Arne Jacobsen), 한스 웨그너(Hans Wegner), 베르너 판톤(Verner Panton), 스웨덴의 이케아(IKEA), 켈레모(Källemo) 등의 대상에 한정되어 있다(4)(5)(6)(7). 따라서 스웨덴 20세기 현대 가구디자인의 특징을 대표하는 작품을 제작해 온 대표적인 작가들에 대한 연구는 브루노 맞손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8)를 제외하고는 드물다. 그러므로 20세기 스웨덴의 대표적인 가구디자이너 작가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전개한다면 앞으로 국내의 후속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세기 스웨덴을 대표하는 가구 디자이너들의 작품세계를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20세기 스웨덴 현대 가구디자인의 특성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스웨덴 현대 디자인의 특성을 알아본다.
- 2) 문헌과 웹사이트를 통하여 스웨덴의 대표적인 가구 생산회사와 현대 가구디자이너를 파악한다.
- 3) 스웨덴의 대표적인 가구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하여 스웨덴 현대 가구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한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스웨덴을 대표하는 가구생산회사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였다.

스웨덴의 20세기의 대표적인 가구디자이너를 선정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관련 문헌(9)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작가 6명을 스웨디쉬 모던의 대표적인 가구디자이너로 선정하였다. 2차적으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공식적인 웹사이트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닷 컴(www.scandinaviandesign.com)에 접속하여 그 곳에 등록된 스웨덴의 가구회사 웹사이트

트를 검토하여 스웨덴의 가구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회사를 선정하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가구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중, 앞서 선정된 6명과 중복되지 않는 2명을 추가로 선정하였다(10). 선정된 가구회사는 다수의 디자이너들과 계약을 맺고 스웨덴적 특성을 가진 가구를 대량생산하는 회사로서 켈레모(Källemo), 스웨데세(Swedese), 예르스내스(Gärnsås)의 3개 회사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8명의 대표적인 가구디자이너들의 작품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20세기 스웨덴 현대가구 디자인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 2. 스웨덴 현대 디자인의 특성

스웨덴 현대 디자인의 가장 큰 특성은 기능주의와 수공예를 중시하는 장인정신, 그리고 민주주의적 전통의 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디자이너들은 높은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수공예 전통과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현대적인 조형언어를 자국의 스타일로 조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스웨덴은 20세기 이전까지 외국의 디자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이러한 외국으로부터의 자극과 영향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이를 독자적인 표현양식으로 승화, 발전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근대화 과정에서 스웨덴 지식인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사회적 평등”이었다. 따라서 스웨덴의 굿 디자인(Good Design) 제품들은 소수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값비싼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서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성격의 제품들이었다. 엘렌 케이(Ellen Key)와 그레고르 폴손(Gregor Paulsson)의 디자인을 통한 사회개혁의지, 즉 “모두를 위한 아름다움(Skönhet for alla)”, “보다 아름다운 일상생활용품들(Vackrare Vardagsvara)”의 이상은 도시 노동자 계층을 위한 대규모 주택사업을 통하여 구체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다. 디자인 생산업체와 정부기관들은 사회전반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자인 수요자인 소비자들의 안목을 높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각종 디자인관련 전시회 개최, 신문칼럼 연재, 일반인 대상 야간학습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통하여 일반 대중의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1960년대 이후 일반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도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상용품의 디자인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유니버설 디자인

4) 한영호, 스칸디나비아의 가구디자인에 대한 연구, 상명대 논문집, 1990, pp.467-506.

5) 한지숙,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를 중심으로 고찰한 스칸디나비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6) 김진우, 스웨덴 의자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3대 가구회사에서 양산되고 있는 의자디자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형연구 13호, 건국대학교 조형연구소, 2006.

7) Kim, Jinwoo,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wedish Furniture Company, Källemo's Chair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Furniture Society Vol.17 No. 4. 2006.

8) 홍민정·최정신, 전개서, 2009

9) 스웨덴의 대표적인 가구디자이너를 선정하기 위하여 참고한 관련 문헌은 다음과 같다.

\*Arkitekturmuset, Bruno Mathsson, Designer and Architect, Arkitekturmuset Stockholm. 2006

\*Klein, Barbro & Widbom, Mats, Swedish Folk Art, Abrams. 1994

\*Fiell, Charlotte & Peter, Modern Chairs, Taschen. 1997

\*Fiell, Charlotte & Peter, Scandinavian Design, Taschen. 2005

\*Hagströmer, Denise, Swedish Design, The Swedish Institute, 2001.

10) 올비, 스펀스크트 텐, 브루노 맞손 인터네셔널과 같은 회사는 서스틴 올비(Kerstin Olby), 요셉 프랑크(Josef Frank). 브루노 맞손(Bruno Mathsson)과 같은 특정한 개인의 가구만을 생산하는가 하면 어떤 회사들은 제한된 가구만을 생산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 명성을 얻으며 끊임없는 개발의 지를 펼치고 있다<sup>11)</sup>. 이와 더불어 1970년대에 들어서는 작업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특히 장애인,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스웨덴 디자인은 각양각색의 형태미와 풍부한 상상력으로 사회조건을 변화시킬 대변하고 있지만 그 뿌리는 지난 19세기의 스칸디나비아 모던 디자인에 그 전통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예를 들면, 스웨디쉬 모던의 사상을 잇는 브루노 맛손(Bruno Mathsson), 칼 말름스텐(Carl Malmsten), 요셉 프랑크(Josef Frank)와 같은 가구디자이너들은 강철관의 사용을 거부하고 주로 나무와 마, 가죽 등의 천연소재를 이용하여 작업하였다.

이케아(IKEA)는 이러한 스웨덴의 가구디자인을 전 세계에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로 여겨지며 스웨덴 고유의 디자인 감각을 살려 조립식 디자인에 중점을 둔 대중적인 가구를 생산하여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 3. 스웨덴의 현대 가구디자이너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방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문헌에서 선정한 스웨덴의 대표적인 현대 가구디자이너 6명(군나 아스플룬드, 칼 말름스텐, 요셉 프랑크, 존 칸델, 마츠 테셀리우스, 브루노 맛손)과 회사의 웹사이트를 검토하여 선정된 3개 가구회사 셸레모, 스웨테세, 예르스네스에서 다수의 작품을 생산하는 대표적 가구디자이너 2명(오케 악셀손, 잉베 엑스트립)을 통합한 결과, 총 8명의 디자이너들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8명의 작가를 스웨덴의 대표적인 가구디자이너로 보고 분석을 전개하였다<sup>13)</sup>.

#### 3.1. 스웨덴의 대표적인 가구회사의 역사와 특징

##### (1) 셸레모

셸레모는 1965년 스벤 룬드(Sven Lundh)와 그의 부인에 의해 스웨덴의 작은 마을 베르나모(Värnamo)에서 설립되었고, 현재도 그곳에 본부를 두고 있다.

스벤은 196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브루노 맛손(Bruno Mathsson), 한스 베그너(Hans

Wegner), 폴 예르홀름(Poul Kjærholm) 모겐 코크(Mogen Koch) 등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예술과 디자인을 감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개발하였으나 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프랑스 작가인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이었다.

회사설립 이후 셸레모의 가구는 언론과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다가 1981년 요나스 볼린(Jonas Bohlin)의 콘크리트 의자(Concrete Chair)가 성공적으로 판매됨으로써 1차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스벤은 이 의자의 성공을 통하여 가구의 가치가 재료의 가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sup>14)</sup>, 그 때 이후로 셸레모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2차 전환기는 스벤 부인의 죽음이었다. 부인의 죽음은 스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어 그가 의욕을 잃고 회사를 떠나려 했을 때 전혀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던 그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은 부모의 직업을 자녀가 물려받는 전통이 거의 없는 스웨덴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고 다행히 스벤의 자녀들은 셸레모를 통하여 아버지의 운영철학을 계승하는데 성공하였다.

셸레모의 디자인 철학은 독특하다. 셸레모는 상업적 마인드보다는 창조적 마인드에 치중하여 재료의 질보다는 인간의 눈을 통한 심미적인 질을 더 강조하는 회사이다. 셸레모가 매력을 창출하는 대량생산 가구디자인에서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은 전례가 없으면서도 진보적인 컨셉의 추구이다. 셸레모는 실수나 시행착오도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작업을 위하여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철학이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가장 매력적인 회사로 셸레모를 손꼽도록 만든 이유가 되었다<sup>15)</sup>.

셸레모의 가구디자이너 선발과정은 독특하다.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어느 디자이너가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두껍거나 그래픽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고 단지 A4용지 몇 장에 작은 그림으로 다양한 탱고의 포즈를 그린 것으로서, 그 제목은 “탱고는 어떻게 추는가?”였다. 회사의 운영진은 그 디자이너가 탱고를 추는 신체의 구조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묘사하였으므로 가구를 디자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선발하였는데 그가 바로 1998년에 탱고 의자(Tango Chair)를 디자인한 지그루두르 구스타프손(Sigurður Gustafsson)이었다<sup>16)</sup>.

셸레모에서 생산되는 가구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군나르 아스플룬드(Gunnar Asplund), 존 칸델(John Kandell),

11) 홍민정, 스웨덴 디자인의 민주주의 전통-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디자인-스칸디나비아연구 제6호, 2005, pp.191-205.

12) 한영호, 전계서, 1990

13) 이케아(IKEA)와 오펙트(Offecct)도 연구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이지만 이케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있고, 오펙트는 가구디자이너의 대부분이 다국적이어서 스웨덴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14) www.kallemo.com

15) Kim, Jinwoo, 전계서, 2006

16) www.kallemo.com

마츠 테셀리우스(Mats Theselius), 지그루두르 구스타프손(Sigurdur Gustafsson), 콤폴로트 디자인(Komplot Design), 요한 린튼(Johan Linton), 안나 크라이츠(Anna Kraitz), 마티아스 융그렌(Mattias Ljunggren) 등이 있다.

## (2) 스웨덴세

스웨덴세(Swedese)는 공공 가구와 가정용 가구생산 모두에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스웨덴의 가구회사로 1945년에 잉베와 예르커 엑스트룀(Yngve and Jerker Ekström) 형제와 스벤 베르틸 쇠크비스트(Sven Bertil Sjöqvist)에 의해 설립되었다. 회사를 운영하던 잉베가 사망한 이후 현재는 엘리자베스 요한손(Elisabeth Johansson)이 회사를 운영한다. 회사의 본부는 스몰란드(Småland)의 바거리드(Vaggeryd)에 있고 공장은 스웨덴 내르쇠(Nässjö) 교외의 작은 마을인 앵(Äng)에 있다.

스웨덴세의 이상은 60년 전 처음으로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며,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스칸디나비아 모던의 전통적인 가구를 기반으로 디자인한 미래지향적인 아름다운 가구를 생산하는 것이다. 스웨덴세의 기능주의 건축가들은 국제적인 디자이너들로서 주택을 디자인하는 데 명확한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가구, 직물, 그리고 집 주인이 입을 옷까지도 디자인하고 이것은 설립자인 잉베 엑스트룀도 예외는 아니었다. 알바 알토, 부루노 마트손, 아르 야콥슨, 그리고 폴 예르홀름을 포함하여 잉베 엑스트룀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칸디나비아 모던의 컨셉을 만든 핵심적인 디자이너 세대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리한 눈으로 스웨덴세의 가구, 회사본부 건물, 로고, 카탈로그, 시(poem)를 적어 넣은 개성적인 크리스마스카드까지도 디자인하였다.

잉베 엑스트룀의 가장 유명한 디자인은 라미노 의자로, 1999년에 스웨덴의 인테리어 디자인 잡지인 쇠나 험(Sköna Hem)에 의하여 스웨덴의 20세기 최고의 가구디자인으로 선정되었다.

스웨덴세에서 생산되는 가구의 주요 디자이너는 잉베 엑스트룀 이외에 콘셉(Koncept), 토마스 베른스트란드(Thomas Bernstrand), 페르 보른스테인(Per Bornstein), 소피아 달렌(Sophia Dahlén), 모니카 헤르스터(Monica Förster), 수잔 베셀리 그로마크(Susann Wesseley Gromark), 마티아스 린드(Mattias Lind), 피터와 에바 모리츠(Peter & Eva Moritz), 로저 페르손(Roger Persson), 라스 페테르손(Lars Pettersson) 등이 있다<sup>17)</sup>.

## (3) 예르스네스

예르스네스(Gärnsås)는 1893년에 설립되어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활발하게 가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 중의 하나이다. 예르스네스에서는 탁월한 건축

가와 디자이너들이 모든 환경에 어울릴 수 있는 최고급의 모던하고 기능적인 가구를 생산한다. 이 회사의 리더는 인테리어 건축가인 오케 악셀손(Åke Axelsson)으로, 40년이 넘게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의 동업자로서 다 클록비(Dag Klockby, 안나 클록비(Anna Klockby), 이언 우베 포르셀(Jan-Ove Forsell), 그리고 케네트 요한손(Kenneth Johansson)이 있다. 1만 스퀘어미터 면적으로 말피에서 동쪽으로 90km 떨어져있는 예르스네스에 위치한 예르스네스 회사에는 전체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주로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단풍나무, 호두나무, 참나무, 물푸레나무 등과 같은 목재를 이용한 가구제품을 생산한다.

예르스네스의 주요 고객은 정부, 무역회사, 산업체 등이지만 개인고객도 상대한다. 예르스네스 공장에 위치한 전시장은 연중 개방되고, 스톡홀름의 뢰드보드토리에(Rödbodtorget)에 위치한 전시장은 거래를 위한 만남의 장소이다. 예르스네스의 가구는 주로 소매상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판매되고 전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수출품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직접 수출하고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에는 지점을 설립하였다.

예르스네스의 가구는 자체 내 생산으로 최고급의 품질을 유지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제함으로써 환경규칙에 맞게 생산한다. 따라서 모든 배달품은 가능한 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차량으로 직접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침이다.

예르스네스에서 생산되는 가구의 주요 디자이너는 오케 악셀손 이외에 엘리자베스 앙커(Elisabeth Ancker), 요한 셀싱(Johan Celsing), 세실리아 안드레아손(Cecilia Andreasson), 토마스 에릭손(Thomas Eriksson), 마르타 프리만(Märta Friman), 뵈른 훌텐(Björn Hultén), 랄프 린드베리(Ralf Lindberg), 안나 본 쉘벤(Anna von Schewen), 피에르 신드레(Pierre Sindre) 등이 있다<sup>18)</sup>.

## 3.2. 스웨덴의 대표적인 가구디자이너

### (1) 에릭 군나르 아스플룬드

에릭 군나르 아스플룬드(Erik Gunnar Asplund, 1885~1940)는 스칸디나비아 기능주의의 저명한 주창자이고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건축가로 간주된다. 아스플룬드는 모더니즘을 스칸디나비아 신고전주의 양식의 우아함과 결합시킴으로서 독일식 모더니즘 건축보다 한층 순화된 디자인 언어로 발달시켰다고 평가된다. 그는 예술적 직관력으로 통일감과 정확한 형태를 탐구하는 데 전 생애를 바쳤다.

그는 스톡홀름 왕립미술대학교에서 수학하였고(1905~1909) 1909년부터 건축에 집중하여 스톡홀름에 건축사무

17) www.swedesse.se

18) www.garsnas.se

소를 열었으며 그 후 건축 기술잡지(Teknisk Tidskrift Arkitektur)의 편집인, 스톡홀름 왕립미술대학교의 교수로 역임하였다.

1911년부터 1930년까지 그는 많은 신고전주의양식의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디자인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스톡홀름의 스칸디아 극장(1923)과 시립도서관(1928)이었다. 이때 센나의자(1925)와 같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가구들도 발표하였다. 그가 스웨덴 산업디자인협회를 위해 디자인한 의자는 비더마이어 양식의 안락의자를 현대적 스타일로 변화시킨 혁신적인 것으로서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 안락감의 찬란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Fiell, 2005).

아스플룬드의 작품은 1930년 스웨덴 디자인협회로부터 스톡홀름 전시회의 대표 건축가로 지명되었을 때 극적인 전환을 맞았다.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게 된 이 전시회에서 유리와 강철로 된 그의 모더니즘 건축이 스웨덴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아스플룬드의 많은 성과 중에는 스톡홀름의 스코우슈코고든(Skogskygård)과 예테보리 시청사의 확장부분 등이 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스톡홀름 근처의 우드랜드 화장터(Woodland Crematorium)에는 성실, 희망, 자선교회(Faith, Hope and Charity Church)가 있고 1940년 그가 사망했을 때 희망교회(Hope Church)에서 그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 (2) 칼 말름스텐

칼 말름스텐(Carl Malmsten, 1888~1972)의 디자인이 부루노 맞손과 같은 후대의 스웨덴 디자이너들에게 미친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이 크다. 그는 스웨덴의 선구적인 가구디자이너로서 아스플룬드와 함께 1917년 스톡홀름 릴리에발크스 갤러리에서 열린 가정용품 전시회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는 1908년까지 스톡홀름에 있는 펠만스 한델스 인스티튜트와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공부도 하였다. 1910년대 말부터 1920년대 말까지 말름스텐은 스웨덴의 선구적 아방가르드 디자이너 중의 한 사람으로, 주로 구스타브 스타일(Gustaf Style)을 모던화한 그의 작품은 단순한 기능과 정식적인 명료성으로 유명하다. 말름스텐은 “디자인은 모던한 접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과 독특한 작품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스웨덴 민속예술에 문화적 바탕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의 예술공예운동의 영향을 받아, 디자이너로서의 자신의 임무는 현대의 유행에 상관없이 주택과 아파트에 유용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가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목재에 항상 최고의 가치를 두었고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을 접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유럽양식에서 최고의 질을 선택하여 스웨덴화 하였으며 또한 대중적인 것을 품위 있고 우아하게 만들어 내었다.

그가 1916년 스톡홀름 시청사의 실내디자인을 맡았을

때, 일상용품 개선운동에서 나타난 극단성과 스웨덴 양식의 거부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그는 새로운 디자인 개념이 필요하다는 하지만 대중예술의 테마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능주의의 반대론자로서의 말름스텐은 스웨덴의 디자인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사람의 손으로 작업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수업, 학교교육, 저술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장하였고, 오늘날까지도 말름스텐의 이념에 따라 예술공예운동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sup>19)</sup>. 그는 가구디자인에 있어서 극단적인 절제미를 이용하여 스웨덴의 전통적 유산과 현대적인 것을 통합하는 작업을 일관되게 실행한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다.

## (3) 요셉 프랑크

요셉 프랑크(Josef Frank, 1885~1967)는 칼 말름스텐, 브루노 맞손과 함께 스웨덴 디자인의 3대 거장의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요셉 프랑크는 오스트리아 바덴(Waden) 태생으로 1933년부터 스웨덴의 인테리어디자인 회사인 스벤스크 테(Svenskt Tenn)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1934년 스톡홀름으로 이주하였고 196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을 그곳에서 일하며 가구, 직물, 유리공예 작품을 제작하였다. 건축가로서 프랑크는 비엔나 공방건물을 디자인하였고 독일공작연맹의 랜드마크인 슈투트가르트 주택전시회에도 참여하였다. 그가 디자인한 강화 콘크리트로 지은 평지붕의 연립주택은 매우 현대적이었으나, 그 안에 놓인 신고전주의적 분위기의 가구디자인은 모던하고 기능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기이하게 보였다고 한다<sup>20)</sup>.

요셉 프랑크의 가구디자인은 실용성과 안락감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비례와 수준 높은 장인정신으로 탁월하다. 특히 그의 디자인은 스칸디나비아 가구에 오스트리아풍의 정교함과 부드러움을 결합시킨 것이 특징이다. 프랑크는 마호가니 목재를 사용하면서 낫쇠 손잡이나 상감과 같은 세공을 중시하여 반 기능주의적인 작품을 만들었다. 그는 스웨덴 디자인이 기능주의로부터 벗어나 자신들만의 인본주의적 스타일을 만드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평가된다. 프랑크의 작품들은 1980년대에 리바이벌 되었고 아직도 스벤스크 테에서 생산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초기 개척자로서의 그의 기여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sup>21)</sup>.

## (4) 존 칸델

의자디자인에 도전한 예술가는 무수히 많으나 독특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자를 디자인한 작가는 드문데, 존 칸델(John Kandell, 1925~1991)은 그러한 드문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1950년대에 그는 가구와 인

19) Klein, Barbro & Widbom, Mats, Swedish Folk Art, Abrams, 1994.

20) Fiell, Charlotte & Peter, Scandinavian Design, Taschen, 2005.

21) Fiell, 전제서, 2005

테리어 디자인을 하였고 건축, 유리, 직물 디자인에도 관여하였다. 그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세련된 비례감, 강렬한 선, 그리고 절묘한 자료처리였다. 어떤 작품은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현재 다시 리바이벌 된 것도 있다. 칸델은 항상 심미안적으로 작업했으나, 때로는 미니멀적으로 작업하기도 하였다. 그는 해체했다가 쉽게 재조립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가구시리즈를 만들었다. 사려 깊게 디자인된 존 칸델의 가구는 대량생산에 적합하고 수송이 편리하며 능률적이어서 유행을 타지 않고 항상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1980년대 초, 칸델은 통나무를 거칠게 톱질한 후 가볍게 채색한, 상상력이 풍부하고 독특한 캐비닛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오리지널한 가구디자인에 대한 접근이었고 우리가 민속예술의 거장에게서 만날 수 있는 신선함 그 자체였다. 그는 새로운 민속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그 접근은 다리 세개 달린 카밀라 의자(Camillar Chair)에서 가장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통은 모던형태의 도화선이 되었다<sup>22)</sup>.

#### (5) 마츠 테셀리우스

마츠 테셀리우스(Mats Theselius, 1956~)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스톡홀름 국립디자인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을 공부하고 1995년에 예테보리의 HAD에서 산업디자인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는 1984년 이케아, 스웨덴 국립예술재단, 스웨덴 디자인협회 등에서 장학금을 수상하였고, 1986년과 1988년에 여행 장학금을 수상하였다.

마츠 테셀리우스의 가구작품은 다양한 이미지를 추구하여 기능과는 거리가 먼 잠재적인 결합을 표현하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금발의 스웨덴(Swedish blond)”풍이 아닌, 보다 원시적인 스웨덴풍의 가구를 만드는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 북부의 오달렌(Ådalen)이 그의 작업의 중심지였고 여기에서 옛날 마을의 목수가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나무췌기로 가구를 접합하여 튼튼하게 만든 프로토 체어(Proto Chair)의 영감을 얻었다. 이 의자는 테셀리우스의 연상에서 나온 명확한 비례감을 갖추고 있다. 그는 철이나 무스<sup>23)</sup>, 자작나무 껍질, 사슴 뿔 등과 같은 전형적인 스웨덴의 재료로 작업하였다. 농부 스타일의 소파 디자인은 목재에 채색을 하고 금속실로 수를 놓았으며 론 문자로 글씨를 쓴 사미족의 전통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그가 발표한 테셀리우스(Theselius) 이지체어는 구부린 회색의 알루미늄 틀에 자작나무 껍질을 스웨덴 민속방식으로 엮어서 좌판으로 사용함으로써 산업화와 스웨덴 민속형태와 재료 사이의 대조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테셀리우스 이지체어와 통나무를 파내어 만든 스웨덴 고대의 블록의자 사이에는 많

은 유사성이 있다<sup>24)</sup>.

#### (6) 브루노 맛손

브루노 맛손(Bruno Mathsson, 1907~1988)은 1907년 스웨덴의 베르나모(Värnamo)에서 4대째 캐비닛 메이커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말름스텐, 아스플룬드와 함께 스웨덴 모던 가구디자인의 위대한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처음에 아버지의 공방에서 수련을 받고 일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목재로 딱딱한 느낌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드는 기능주의적 디자인이 지배적이었으나 맛손은 이와 대조적으로 의자 디자인에 부드러운 유기적 형태를 사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가구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그는 인체를 반영하는 인체공학적 관점에서 의자를 디자인하였다. 기계를 이용하여 나무를 접합하고 구부리는 창의적인 시도는 새로운 방법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내었고 그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그 당시보다 현대사회에서 더욱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일반적인 기능주의 의자보다는 인체공학에 관심이 많아 인체의 앉는 곡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라운지체어, 휴식용 체어 등을 제작하였으며 1934년에 기하학적인 기능주의로부터 유기적인 모더니즘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스웨덴 디자인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 에바 체어(Eva Chair)를 발표하였다<sup>25)</sup>.

맛손은 1936년 예테보리의 뢰스카 뮤지엄Röhsska Museum)에서 개인전을 열어 관객들의 호응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스웨덴 디자인협회로부터 파리박람회 출품에 초대받게 되었다. 파리박람회 출품을 계기로 그는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어 유럽뿐 만 아니라 뉴욕 현대미술관에도 그의 작품이 전시될 정도로 유명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공공실내 디자인에 관심을 표명하여 목재 뿐만 아니라 강철 파이프를 이용한 가구를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 전시용 스크린과 컨퍼런스용 가구인 쿡엔(Kunggen)을 제작하였다.

맛손의 가구디자인은 가능한 한 공간을 적게 차지하도록 상판을 접을 수 있거나,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쿡엔 테이블은 다른 크기나 종류의 테이블 상판에 다리를 쉽게 조립할 수 있고, 기본 테이블에 무한정으로 추가 테이블을 접속할 수 있어서 회의 장소에서 사람 수에 제한받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다<sup>26)27)</sup>.

#### (7) 오케 악셀손

오케 악셀손(Åke Axelsson, 1932~)은 1932년에 태어나 비스비(Visby)에 있는 목공예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22) Klein, Barbro & Widbom, Mats, 전게서, 1994

23) 무스(moose)는 스웨덴에 서식하는 말코 손바닥 사슴.

24) Klein, Barbro & Widbom, Mats, 전게서, 1994

25) Fiell, Charlotte & Peter, 전게서, 2005

26) Arkitekturmuset, 전게서, 2006

27) 홍민경·최정신, 전게서, 2009

(1947~1951), 그 후 1년간 문헨에 있는 공방에서 수련을 쌓았다. 1952년부터 1957년까지 스톡홀름의 미술공예디자인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예스타 오베리(Gösta Åberg), 피터 셀싱(Peter Celsing)의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다가 1967년 이래로 백스홀름(Vaxholm)에 자신의 사무실을 열고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예르스내스의 설립자이자 대표적인 가구디자이너로서 수많은 의자디자인을 발표하였다<sup>28)</sup>.

#### (8) 잉베 엑스트림

잉베 엑스트림(Yngve Ekström, 1913~1988)은 스웨덴 스몰란드의 하가포스(Hagafos)에서 1913년에 태어났고, 고향에 1945년에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가구회사의 하나인 스웨데세를 설립하였다. 엑스트림은 그림, 조각, 음악과 예술사를 공부하였다. 문자 그대로 그는 가구에 대해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익숙하여 스웨데세를 설립하고 사망할 때 까지 계속해서 회사를 이끌어갔다. 그의 경력은 전후의 모더니즘 운동의 시기와 일치하고 알바 알토, 브루노 마트손, 아르 야콥슨, 폴 예르홀름 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칸디나비아 모던의 컨셉을 만든 핵심적인 디자이너 중의 한 사람이다.

엑스트림의 가장 유명한 디자인은 1956년에 발표하여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는 라미노 암체어(Lamino Armchair)이다. 이 의자는 1999년에 스웨덴의 인테리어 디자인 잡지인 쇠나 헴(Sköna Hem)에 의하여 스웨덴의 20세기 최고의 가구디자이너로 선정되었다. 엑스트림의 가구는 암스테르담, 비엔나, 베를린, 파리, 문헨, 벨그라드 등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전시되었고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에도 모던 컬렉션의 상설전시 작품으로 전시되고 있다<sup>29)</sup>.

## 4. 스웨덴 현대 가구디자인의 특성

### 4.1. 가구디자인 회사의 추구이념을 통해서 본 스웨덴 현대가구 디자인의 특성

본 절에서는 스웨덴의 가구회사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통하여 스웨덴 현대 가구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들은 회사설립 이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춥고 긴 겨울밤의 어두움과 여름의 밝고 상쾌한 백야를 가진 스칸디나비아의 두 가지 생활을 이해한다면 가능하다. 이 두 가지의 생활이 스칸디나비아 특유의 기능적인 디자인의 밑거름이 된다<sup>30)</sup>”.

“1980년 이래로 나는 캐비닛 메이커와 가구디자이너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시간을 초월한 튼튼하고 단순한 가구를 창조하려고 분투해왔다. 가능하다면 이 가구들이 내일의 골동품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현대적인 유행의 영향을 받거나 표면에 치장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이 점을 성취해보려고 노력했다. 나의 목표는 탁월한 품질을 탁월한 디자인과 기능에 부합시키는 것으로 달성되었다.... 형태와 아름다운 표면 이외에 내가 추구하는 또 다른 목표는 가구가 매일의 일상 생활을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구를 최소한의 유지관리로 튼튼하고 쓰기 쉽게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지는 가구 재료는 그리 많지 않은데 그러한 재료가 바로 목재이다<sup>31)</sup>”.

“나무구조에는 매우 특별한 것이 있다. 집을 짓고, 배를 만들고, 가구를 만들면 나무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낸다. 나무는 거칠거나 다듬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하고 잘 세공되어 자랑스럽게 빛나기도 하며, 또는 현대적인 제작과정을 거쳐 정교함에 경이로울 수도 있다. 나무는 구부릴 수도 있고 라미네이트를 만들 수도 있으며 자르고 결합할 수도 있다. 이 모든 방법으로 잘만 만들면 나무는 아름다움과 소통할 수 있다<sup>32)</sup>”.

이상과 같이 스웨덴의 가구디자이너 또는 가구디자인 회사의 이념을 종합해 보면 기능적이고 크게 유행타지 않으면서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목재로 된 가구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것을 알 수 있다.

### 4.2. 가구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서 본 스웨덴 현대 가구디자인의 특성

연구자가 선정한 스웨덴의 대표적인 8인의 디자이너의 가구작품과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즉, 4.1의 가구회사의 이념과 각 가구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한 실현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가구디자인 사에 있어서 우아함, 단순성, 합리성, 실용성이 조화되어 있다고 평가되어 온 스웨덴의 현대 가구디자인에 대하여 대표적인 작가 8명의 작품분석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스웨덴 디자인의 전통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떠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한 20세기 스웨덴 현대가구 디자인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28) www.garsnas.se

29) www.swedesse.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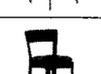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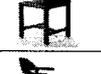
30) 제로 디자인/www.zero.se

31) 올비 가구의 Kerstin Olby/ www.olby.se

32) 노르딕 캐어의 뵤른 달스트림 Björn Dahlström/ www.nordiccare.se

<표 1> 20세기 스웨덴의 대표적인 8인 가구디자이너의 작품분석

디자이너	가구이름	가구 디자인	규격(cm) w/h(좌판높이)/d	재료	특성
군나르 아스플룬드	Easy Chair		75.76(46).78	프레임: 크롬 도금한 강철. 등받이: 벤트우드. 좌판: 폼, 가죽.	재료적 특성: 목재 이외에 가죽과 강철의 사용을 병행함.
	Arm Chair (Senna chair)		62.78(46).54	프레임: 크롬 도금한 강철. 등받이: 벤트우드. 좌판: 폼, 가죽. 비더마이어나양식	형태적 특성: 모더니즘을 스칸디나비아 신고전주의 양식의 우아함과 결합시킴.
	Asplund Stool		29.55~75.35	프레임: 강철. 좌판: 목재 또는 폼, 가죽. 높이조절 가능.	
칼 말름스텐	Desk Chair		치수 미상	프레임: 목재. 좌판: 케인	재료적 특성: 천연목재나 케인 사용.
	Writing Table		90.75.95	마호가니, 장미목.	형태적 특성: 아방가르드 디자인어중의 한 사람으로 주로 구스타브 스타일을 모던화하여 기능적인 단순성과 정서적인 명료성을 살림. 스칸디나비아 모던. 신고전주의 양식의 모더니즘화에 기여하고 기계사용을 반대함.
	Lounge Chair		치수 미상	프레임: 목재. 좌판과 등판: 폼을 채운 후 형강 업홀스터리	
	Chair		치수 미상	목재	
	Side Table		치수 미상	마호가니	
요셉 프랑크	Liljevalchs Arm Chair		125.70.105.	형강 업홀스터리.	
	Arm Chair 1165		58.83.57	프레임: 마호가니. 좌판: 나무판 위에 말털로 채운 좌판을 형강으로 쓴다.	재료적 특성: 목재 프레임에 형강 업홀스터리를 주로 사용함.
	Easy Chair 3543		85.101(46).85	프레임: 목재. 좌판: 스프링과 고무 폼. 형강 업홀스터리. 좌판 가동식.	형태적 특성: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에 오스트리아 풍의 정교함과 부드러운 감을 가미함. 신고전주의 양식을 모더니즘에 맞게 적용하여 디자인함. 세공을 중시하여 수공예적인 아름다움이 살아있음.
	Arm Chair 652		54.105(45).58.	프레임: 체리목. 좌판: 직조, 고무 폼 위에 형강 업홀스터리. 1936년 골든게이트 전시회 출품작	
	Arm Chair 300		56.83(45).52	프레임: 너도밤나무, 호두나무. 좌판: 나무판 위에 말털로 채운 좌판을 형강으로 쓴다. 고대 그리스 클리소모스의자의 리바이벌.	
존 칸델	Camilla Chair		25.83(45).35	프레임. 다리: 너도밤나무 천연목재 또는 채색. 다리 세 개의 스웨덴 민속의자 디자인	
	Schablon Chair		38.80(45).42	프레임. 다리: 너도밤나무 천연목재 또는 채색. 좌판: 마 테이프 직조. 스톨도 있음.	재료적 특성: 천연목재 프레임에 채색을 하고 좌판으로 가죽과 마 테이프를 많이 사용함.
	Victory Arm Chair		65.109(45).66.	프레임: 너도밤나무 자연색 또는 적, 백, 흑색 채색. 좌판: 마 테이프 직조 위에 가죽.	형태적 특성: 스웨덴 고유의 민속가구 디자인을 적용하고 주로 목재를 이용하되 채색을 많이 함. 독특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자를 많이 디자인함.
	Vilan Lounge Chair		40.78(40).125	프레임: 너도밤나무 흑색 또는 적색 채색. 좌판: 가죽	
	Solitär Arm Chair		60.89(45).50	프레임. 다리: 너도밤나무 천연목재 또는 채색. 좌판: 가죽. Solitär 책상과 책장도 있음.	
	Barnarn Chair		35.45.27	프레임: 마호가니 좌판과 팔걸이: 가죽 어린이용 의자.	
맛츠 테셀리우스	Theselius Easy Chair		60.70(45).62	프레임: 목재 또는 광택 낸 알루미늄. 좌판과 등판: 폼을 넣은 가죽 또는 세우. 다리: 알루미늄. 프레임에 물푸레나무 또는 참나무로 한 것도 있음.	재료적 특성: 스웨덴 민속가구의 특징을 새로운 재료로 구현함. 목재를 주재료로 하되 약간의 강철, 알루미늄을 병용함.
	Ambassard Arm Chair		54.75(45).53	프레임: 크롬이나 구리 도금한 강철. 등판과 팔걸이: 가죽 자연색 또는 갈색, 흑색. 좌판: 폼.	
	Bruno Easy Chair		56.70(40).69	프레임: 강철. 등판과 팔걸이: 가죽 자연색 또는 갈색, 흑색. 좌판: 폼.	

맛츠 테셀리우스	Sven Easy Chair		54.71(39).67	프레임: 강철. 좌판과 등판: 압축 물당한 자작나무 자연색 또는 백색, 흑색 채색.	형태적 특성: 산업화와 스웨덴의 민속적인 형태와 사이의 대조를 보여줌.
	Pinn Chair		38.78(45).48	전체 자작나무 자연색 또는 청, 적, 황색 채색.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책장		57.171.22	천연 너도밤나무, 유리문. 광택 낸 낫쇠장식. 매 층마다 25년 치의 NG잡지 수장가능.	
브루노 맛손	Jetson 66 (Mi 466)		57.99(32).82	강철관 지지대. 좌판과 등판: 폴리에스터 망사. 회전 의자	재료적 특성: 가볍고 튼튼한 재료의 사용. 라미네이트, 밴트우드, 마 테이프 직조 방법을 많이 사용함.  형태적 특성: 의자 디자인에 부드러운 유기적 형태를 사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함.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위한 기법 개발. 공간절약형 가구를 많이 디자인함.
	Eva Easy Chair (Mi 472)		60.82(34).71.	프레임: 자작나무, 라미네이트 너도밤나무. 좌판과 등판: 마 테이프 직조 또는 형걸, 가죽 업홀스터리. 좌판과 등판을 폴리에스터 망으로 한 것도 있음	
	Mimat(Mi 401) Chair		48.83(42).54.	프레임: 통나무 자작나무. 좌판: 마 테이프 또는 가죽 끈 직조	
	Mina(Mi425) Easy Chair		59.81(34).69.	프레임: 라미네이트 너도밤나무. 좌판과 등판: 마 테이프 직조 또는 형걸, 가죽 업홀스터리. 업홀스터리의 경우 단추 있음.	
	Anna Stool(Mi435)		61.54(48).36	프레임: 자작나무. 좌판: 가죽시트	
	BM 65 Chair(Mi065)		55.81.45.	프레임: 크롬 도금한 강철관. 등판과 좌판: 물푸레나무.	
오케 악셀손	Light & Easy 4594		45.82(44).50	프레임: 물푸레나무 또는 너도밤나무. 자연색 또는 채색. 겹쳐쌓을 수 있음.	재료적 특성: 프레임을 주로 목재로 하고 형걸이나 가죽 업홀스터리를 사용함.  형태적 특성: 겹쳐쌓을 수 있는 공간절약형 의자를 많이 디자인함. 다양한 디자인의 의자디자인 작품을 다수 발표함.
	S 217 Chair		41.75(45).46	프레임: 너도밤나무. 자연색 또는 채색. 겹쳐쌓을 수 있음.	
	Provence 6132 Chair		42.86(43).53	프레임: 참나무. 자연색 또는 채색. 좌판: 참나무 또는 가죽	
	SAR 4359 Comfort Arm Chair		54.78(44).53	프레임: 너도밤나무. 자연색 또는 채색. 좌판과 등판: 비니어 또는 업홀스터리 겹쳐쌓을 수 있음	
	Zenit II 4670 Easy Chair		71.83(43).46	프레임: 물당한 참나무 또는 물푸레나무. 기초관: 크롬도금 강철. 좌판과 등판: 형걸 업홀스터리. 회전 의자.	
	Neptunus I 6202 Easy Chair		64.73(42).67	프레임: 자작나무 또는 참나무, 광택가능. 전체 형걸 또는 가죽 업홀스터리	
잉베 엑스트림	Accent Easy Chair		65.76(42).72	프레임과 다리: 참나무. 시트와 등받이 스프링. 필링: 고탄성 폼	재료적 특성: 프레임으로 밴트우드 또는 라미네이트를 많이 적용하고 양가죽, 마섬유 직조 끈을 이용함. 친환경적인 작품이 많음.  형태적 특성: 유기적인 곡선과 인체공학적 형태의 의자디자인을 많이 함. 라미노 의자는 20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의자로 선정됨.
	Laminette Easy Chair		70.80(41).70	프레임: 라미네이트 너도밤나무 또는 참나무 비니어. 업홀스터리: 양가죽 또는 형걸. 예코라벨.	
	Primo Easy Chair		68.84(41).70	프레임: 라미네이트 너도밤나무 또는 참나무 비니어. 좌판: 자연색 직조 끈 또는 가죽 끈.	
	Rondino 회전 의자		77.75(43).60	프레임: 라미네이트 목재비니어. 등판: 폴리에탄. 베이스: 알루미늄 회전베이스. 지지대: 크롬도금 강철. 필링: 고탄성 폼.	
	Lamino Easy Chair		70.101(41).78	프레임: 라미네이트 너도밤나무, 참나무, 체리목, 호두나무, 비니어. 업홀스터리: 양가죽, 예코라벨. 20세기 최고의 가구디자인상 수여 작품.	
	Lamino Table		직경 46. 높이 49	너도밤나무, 체리목, 참나무 또는 호두나무 비니어	

주) 작가별로 작품 수가 상이하어 1인당 5~6개로 한정하였음.

첫째, 형태에 있어서는 단순하고 유행타지 않으며 기능적인 가구디자인을 추구한다. 이것은 아마도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척박한 겨울환경에서 주로 가족들과 함께 주택 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내생활을 중시하고 이에 적합한 가구와 가재도구의 개발에 주력해온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둘째, 스웨덴의 현대가구 디자인이 기계를 이용한 대량생산에 적합하게 디자인되기는 하였으나 자신들의 전통수공예 기법을 최대한 적용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장인정신을 간직한 조형의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기계주의 미학과는 차별되는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기계의 사용을 반대한 칼 말름스텐, 마르 테셀리우스, 그리고 존 칸벨의 작품 등에서 나타나는 디자인 특성은 스웨덴의 민속가구에서 채용된 것이 많으며 이를 현대적으로 잘 해석하여 적용하였다.

셋째, 가구의 재료는 목재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으며 간혹 금속을 병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목재와 결합하여 함께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목재처리 방법을 이용한다. 특히 브루노 맞손이 개발한 벤트우드(bent wood) 기법은 알바 알토보다도 앞선 것으로, 가볍고 자유로운 형태표현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현대가구의 디자인에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구조재 이외의 부재에도 최대한 자연재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업홀스터리(upholstery)로 마섬유, 직조 테이프, 천연 가죽, 캐인 등을 적극 이용하여 내구성이 강하고 촉감과 통기성이 좋은 천연재료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다.

다섯째, 유지관리가 간편하면서도 튼튼하여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가구디자인이 특징이다. 더욱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연스러운 색, 촉감과 광택이 추가되어 사용자가 오래 쓰고 싶은 가구를 디자인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울비 회사의 이념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여섯째, 친환경 규범에 맞도록 합성수지의 사용과 불필요한 포장재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스웨덴의 모든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으로서 예르스내스, 스웨데세, 셸레모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스웨덴의 20세기 현대 가구디자인의 특성을 찾아보고자 연구대상을 스웨덴의 가구회사와 스웨덴 출신의 디자이너에만 한정하여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스웨덴의 특성이 스칸디나비아의 전체적인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가지는 특유한 자연환경, 인종, 문화적 특성의 공통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Arkitekturmusset, Bruno Mathsson, Designer and Architect, Arkitekturmusset Stockholm, 2006
2. Klein, Barbro & Widbom, Mats, Swedish Folk Art, Abrams, 1994
3. Fiell, Charlotte & Peter, Modern Chairs, Taschen, 1997
4. Fiell, Charlotte & Peter, Scandinavian Design, Taschen, 2005
5. Hagströmer, Denise, Swedish Design, The Swedish Institute, 2001
6. 김진우, 스웨덴 의자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3대 가구회사에서 양산되고 있는 의자디자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형연구 13호, 건국대학교 조형연구소, 2006
7. 최정신, 덴마크 민속 수납가구의 디자인과 장식-채색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7권, 1998
8. 홍민정·최정신, 스웨덴 근. 현대 가구디자인의 특성과 브루노 맞손의 작품세계, 한국가구학회지 20권 5호, 2009
9. 한영호, 스칸디나비아의 가구디자인에 대한 연구, 상명대 논문집, 1990
10. 한지숙,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를 중심으로 고찰한 스칸디나비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1. 홍민정, 스웨덴 디자인의 민주주의 전통-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디자인-스칸디나비아연구 제6호, 2005
12. Kim, Jinwoo,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wedish Furniture Company, Kallemo's Chair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Furniture Society Vol.17 No. 4, 2006
13. Paulsson, Jan, Art, Architecture and Design(Notes on the Nature and Contents of Nordic Models during the 20th Century), 스칸디나비아연구 제6호, 2005
14. www.bruno-mathsson-int.com
15. www.scandinaviandesign.com
16. www.ikea.com
17. www.swedesse.se
18. www.kallemo.com
19. www.nordiccare.se
20. www.olby.se
21. www.garsnas.se
22. www.zero.se

[논문접수 : 2009. 07. 30]

[1차 심사 : 2009. 08. 19]

[2차 심사 : 2009. 12. 19]

[게재확정 : 2010. 01. 06]